

특별기획

군산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개최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채정웅)가 지난 3일 2016 군산시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군산대학교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는 김양원 부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 부의장, 김광영 국회의원, 김기원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민선과 화합을 위한 친목의 장으로 마련됐다.

식전행사로 군산시립합창단을 비롯해 헤스티아 타악동아리, 사위나래, 적십자 평생대학 홀리부, 웰사모 가수 헤민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자원봉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군산시여성자원봉사회 김영림(국무총리표창) 외 28명이 표창을 수상했으며, 자원봉사 콘서트 재능기부 공연과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댄스 공연을 펼쳤다.

이어서 가족 한마음 레크리에이션 단체출발기, 홀리부 노래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드림스타트 연계기관 30여 개소에서 여행가방, 자전거, 문구용품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였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가족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정곤기자

익산 드림스타트 가족 한마당 축제

지난 3일 익산청소년수련관에서 드림스타트 가족과 연계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드림스타트 가족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이날 1년 동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이 미술 공연을 선보였고 지역아동센터 재능기부 공연과 드림스타트 직원들이 댄스 공연을 펼쳤다.

이어진 가족 한마음 레크리에이션 단체출발기, 홀리부 노래 등 다양한 게임을 하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쌓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드림스타트 연계기관 30여 개소에서 여행가방, 자전거, 문구용품 등 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하였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질의 가족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모범음식점 62개소 지정

군산시는 지난 2일 지역음식을 관광자원화하고 녹색 음식문화 조성 모범음식점 62개소를 신규 또는 재지정 했다.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은 명인, 바다화집, 어시장활어회, 전주우육살림탕 4개소로 현지조사 및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평가표에 의거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기존 모범음식점 58개소는 재지정 됐다. 이들 모범음식점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 수여 및 표지판 부착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 융자,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방침이다. 군산시 홈페이지 및 홍보 책자를 통해 대표음식 등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오숙자 군산시 식품위생과장은 "영업주 친절교육을 통해 군산을 대표하는 음식 전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8일 '해양안전리더 교육'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신표)이 해운업계 안전경영 문화확장을 위해 '해양안전리더 교육'을 오는 8일 '군산 리프트 라자호텔'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군산·대산 지역 해운선사 등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다.

해양안전리더 교육에서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안전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을 전환하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위주의 안전대책에서 탈피한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투자 및 안전경영의식 함양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학계 교수 및 현지 선박회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안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학 종합 토론 시간을 통해 안전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는 경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양안전리더 증서가 수여된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신설

장기연임 인한 유착관계·특혜소지 등 차단 임원 희망 새로운 체육관계자 기회 제공 취지

군산시 체육회 산하 통합 경기단체 회장 중임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 체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 체육회는 지난달 학계·법조계·경제계 등으로 구성된 '체육회 임원 심의위원회' 위원 5명에 대한 위촉사를 가졌다.

신설된 임원 심의위원회는 통합대한체육회 정관에 의거 체육회 종목단체 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1회 이상 당해 단체의 임원직을 중임한 경우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의 대상은 각 단체에서 8년 이상

(중임 1회 이상) 임원을 맡고 있는 체육인들로, 심의에서는 재임기간 중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포상 후원금 모집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정량평가(50점)와 향후 임원으로서의 단체기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50점)를 합해 100점 만점으로 임원들을 평가한다.

회장은 평균 80점, 임원은 평균 50점이 넘어야 중임이 가능하다.

임원 심의위원회는 임원의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관계나 특혜소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임원을 희망하는 새로운 체육관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중소기업 용자지원사업 지속 추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폐지 검토

익산시는 당면현안 문제인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와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익산시는 106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 매년

50~60개 업체에 100억~150억 정도의 운영자금 용자를 알선한 것은 물론 2~4%의 이차보전을 통하여 연 4억 원 정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왔다.

하지만 최근 예금금리의 하락(년 1.45% 수준) 등 원금을 잠식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 이자율(3%정도) 차이 확대 등을 판단 지방채 조 기상환으로 방침을 정한다 있다.

익산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알선은 물론 이에 따른 이차보전사업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왕원기자



원광대병원,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활동 펼쳐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최근 캄보디아 비탐방 씨엠립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원광대병원이 의료나눔 국가인 캄보디아 비탐방(씨엠립)을 찾아 해외의료봉사 활동의 감동 스토리를 써 온 것이 벌써 10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해외 의료봉사단(단장 안과 양연식 교수)에는 원광대병원 한방병원, 치대병원 교수, 전공의, 간호사, 의료기사와 행정직원들이 함께 했다. 또한 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의대, 치대, 간호대 학생들 외부자원 인력 등 총 40명의 대규모 의료봉사단원들이 참여 했다.

원광대병원 해외 의료봉사단은 캄보

디아 비탐방 씨엠립에서 진행한 의료봉사 활동 기간 15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갑상선경부, 유방, 서혜부, 복부, 신부인과 초음파 검사와 외과, 안과, 치과환자 271명을 수술 하는 등 7개 진료과목 2,531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혁혁한 활동을 펼쳤다.

원광대병원의 캄보디아 해외 의료봉사 활동은 1997년 캄보디아 의료봉사 활동을 나섰다 불의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유명을 달리 한 원광의대생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시작 되었다.

그동안 캄보디아에서 펼쳐 온 원광대병원의 국경 없는 사랑의 인술은 이번 비탐방 씨엠립 의료봉사 활동이

10회차에 이를 정도로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캄보디아 현지에서도 칭송이 자자해 민간 외교의 가교 역할도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

양연식 해외 의료봉사단장은 "이제는 현지인들이 언제 또 오느냐며 꼭 다시 와달라고 손을 잡고 부탁 할 때면 가슴이 저민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한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려고 밤 흘려준 단원들에 감사사를 전한다. 의료인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시간들이었기에 소중한 의미가 담긴 날들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군산대 K-ICT창업멘토링센터 업무협약 체결

농수산 특화기반 구축·창업허브 공간 육성

군산시는 지난 2일 군산대, K-ICT창업멘토링센터와 함께 새만금 거점 국가 스마트 농수산 특화기반 구축과 창업허브 공간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군산시는 ICT 융복합 스마트 농수산 육성 및 진흥을 통한 창업모델을 개발하고 1차 산업의 4차 산업화를 통해 새만금을 국가차원의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히고 '스마트산업진흥 미래전략 T/F'를

구성,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농수산 특화기반 구축 및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확보를 위한 국가정책 반영, 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자 발굴, 정책자금 지원 모색, 창업자문?공동행사 운영, 홍보 네트워크 공유 등을 위해 3개 기관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의 강점인 농수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

도적 모델 창출을 위해 '새만금 ICT 융복합 첨단 농수산 국가창업허브 구축전략'을 수립하고 국책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산시는 관련 전략개발을 위해 지난 9월 제4차 산업혁명과 농업을 주제로 농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서형식 미래전략실장)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최길성 센터장을 초빙해 정책 토론회를 가졌으며, 11월에는 스마트필드 농업 육성을 주제로 한국농수산대학교 박광호 교수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 구불길 '탁류길'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

군산 구불길 중 '탁류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12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됐다.

12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은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영화 촬영지를 만나 볼 수 있는 '시네마 로드 10선'을 주제로 기획됐다.

군산 탁류길은 초원시공간을 중심으로 8월의 크리스마스'와 '타짜', '장군의 아들' 외에도 많은 영화가 촬영된 전국 대표 걷기 여행길로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번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탁류길은 영화촬영지로서의 매력뿐만 아니라 백룡 채만식의 소설 '탁류'의 배경지인 군산의 원도심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에 남겨진 역사의 흔적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삶의 애환을 경험하고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의미 있는 길이다.

특히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유산을 전시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고인 군산의 속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매력을 간직한 길로 전국의 걷기 애호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탁류길에서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매년 10월



개최되는 군산의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며, 탁류길을 따라 맛집이 밀집되어 있어 축제와 식도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걷기 여행길의 최적지기도 하다.

김성우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탁류길에 12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군산의 구불길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전국의 걷기 애호가들이 많은 매력을 간직한 길로 전국의 걷기 애호가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탁류길에서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해 매년 10월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 내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준비 시동

익산시가 2017년도 7월 및 9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2016년도 재산세 부과와 조정이 완료되어, 2016년 재산세 과세대장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대장으로 이관하고 각종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2016년 6월 2일 이후 2017년 6월 1일 사이의 변동된 과세자료를 적법하게 과세대장에 반영하고, 관내 62만 여건의 모 든 부동산·시설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만큼 조사하고 정리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

특히 2017년도에는 사치성 재산 및 재산세 감면자료를 중점 조사 정비하여 서민우주의 신뢰성확을 구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익산시 재산세는 370억 원(부가되는 세액 포함)규모로 시의 주요 세입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 토지에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구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만큼,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료조사와 신고에 자발적인 협조와 납부를 부탁하였고, 또한 정부 3.0 서비스로 지향하고 시민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납부, 카드납부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 모집

군산시가 FTA 등 대외개방 확대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잠재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2017년도 후계농업경영인'을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미만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주소지(사업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시설설치, 농기계구입,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가족입식, 홈페이지 개발 등에 최대 2억 원의 용자금(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2%)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더라도 신용도에 따라 용자가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기에 신청 전 금융기관에 방문해 대출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농업인대학 수료식

지난 2일, 지역농업 및 농촌발전의 이로운 힘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한 제9기 익산농업인대학 수료식이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렸다. 수료식에는 91명의 수료생을 비롯하여 장현을 시장, 시의장, 농업관련 단체장, 축하객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제9기 익산 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 3개학과에 100명이 입학하여 11월까지 전문 이론교육과 농자재 만들기 실습 선도농업 경영체 벤치마킹 등 학과별로 총 100시간의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에서 100명의 입학

생 중 91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과 함께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교육기간 자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순병관(45, 왕궁면)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고, 전신규(46, 용인면)씨가 다. 이밖에도 학업우수자 10명에게 표창장이,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9명에게 개근상이 수여됐다.

한편 익산농업인대학은 2008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870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명실공히 지역 내 선도농업인 배출의 산실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내년도 제10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은 1월 중 신청 접수 받을 계획이다.

익산=장왕원 기자